

김태호PD “이효리 카메라만 들이대도 에피소드 가득”

“이효리 자체가 콘텐츠” 제작진 개입 최소 리얼리티 강조
티빙 당일 전체 콘텐츠 중 ‘유료 가입여자수 1위 기록’

“이효리 자체가 콘텐츠다” 김태호(47) PD는 티빙 예능물 ‘서울체크인’에 가수 이효리(43)가 온전히 담기길 바랐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스케줄을 마친 이효리는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갈까?’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기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와 달리 파일럿으로 먼저 공개해 시청자 반응을 살폈다. 지난해 ‘엔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AMA)가 기점이 됐다. 제작진 개입을 최소화하고, 리얼리티를 강조했다.

“이효리씨 자체가 워낙 큰 콘텐츠다. 이분한테는 카메라만 들이대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파일럿 방송 때 말하지 않는 순간도 재미있다고 했는데 이효리의 힘이다. 이효리씨는 핫하고 트렌디할 거 같지만, 서울을 어색해하고 ‘나 혼자만 다른 거 같다’고 표현한 점이 새롭게 보여서 그 면을 부각시켰다. 이효리씨가 서울에서 느낀 감정이 트렌디하게 변하는 서울 전경과 교차돼 더 쓸쓸해 보였다.”

파일럿은 1월29일 공개 당일 티빙 전체 콘텐츠 중 유료 가입여자수 1위를 기록했다. 2~3일차에는 공개 당일 대비 유료가입여자수 합산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시청 UV(순 방문자수)는 티빙 연애 리얼리티 ‘환승연애’,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보다 2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김 PD는 “짧은 기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해 다행이었다”면서 “앞으로 나와야 할 성과가

미리 나와서 정규 방송을 앞두고 걱정도 된다. 이미 어느 정도 (시청층을) 확보해서 ‘이효리씨랑 마음 편하게 하자’고 얘기했다”고 귀띔했다.

이효리의 가장 큰 매력으로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꼽았다. “일할 때도 쿨해 작업 속고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며 “궁금한 걸 바로 표현하고 몰랐던 것도 받아들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모습 아래 솔직하고 리얼함도 있어서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제안도 많이 하고 ‘이게 가능할까?’ 고민할 때도 먼저 장애물을 없애준다”고 설명했다.

“효리씨가 엄정화와 대화하며 위로 받지 않았느냐. 시청자들도 ‘저런 언니, 친구 있으면 좋겠다’며 공감했다. 슈퍼스타이지만 나와 똑같은 생각, 감정을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위로 받고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서울 속 따름이 자전거, 키보드 등이 흔한 일상이 됐는데, 이효리씨에게는 신기한 포인트가 돼 기회가 되면 접해보려고 한다. 제주로 간지 8년이 지난 이효리씨와 서울의 간극이 느껴졌는데, ‘간극이 크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고 내려간 것 같다.”

파일럿에서 이효리는 서울로 올라와 선배 가수 엄정화(53) 집에 머물렀다. 엄정화를 비롯해 김완선(53), 보아(36), 그룹 ‘마마무’ 화사(27)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반가움을 안겼다. 지난달 27일 엄정화 유튜브 채널 ‘Umaizing 엄정화TV’에서 이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김완선씨가 집으

로 초대했다. 관객들을 제일 그리워한다:며 “코로나19가 일상화되고 지난 2년과 다른 현실이 찾아오면,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시청자를 만나자고 약속했다. 서울체크인과 다른 콘텐츠로 준비해서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규 방송은 5회 정도까지 찍었는데, 이효리씨가 서울 스케줄 소화하면서 만나고 싶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며 “첫 번째 에피소드 나오는 분들도 이효리씨가 직접 연락해서 약속을 잡았다.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비연예인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와 함께 촬영했는데, 이효리씨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 ‘이런 친근함이 있었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파일럿 방송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다. 오히려 ‘정규방송이 파일럿 보다 재미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다. 파일럿 때 예능적인 구성 추가를 고민하기도 했다. “서울체크인이니 공방에 벨보이 의상을 입은 이효리씨를 데리고 가고, 누구 집에서 묵는지 모르는 설정도 구상했다”며 “파일럿이라서 쉽게, 리얼하게 갔다. 정규방송도 제작진 의도가 보이지 않게끔 관찰자 입장에서 따라갔다. 이효리씨가 1~2주일마다 서울 올라오면 일상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담으려고 노력했다. 직업병 탓에 자막이나 현장에서 멘트 등 개입하고 싶은 순간이 종종 있는데 자제했다. 이효리씨가 촬영을 의식하지 않도록 제작진 규모도 줄였다”고 했다.

서울을 넘어 다른 도시로 확장할 가능성은 없을까. “서울체크인 단어 조합을 보면 확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며 “눈치 챘을 텐데 체크인 앞에 부산, 제주, LQ, 베를린을 넣어 둔다. 이효리씨가 제주도에서 서울을 방문한 게 기점이 됐듯이 누군가가 어떤 장소를 방문하는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된다면 또



다른 콘텐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 기대감을 높였다.

김 PD는 올해 1월 MBC를 퇴사했다. 2001년 1월 입사한 지 21년 만이다.

지난해 8월 MBC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연말까지 예능물 ‘놀면 뭐하니?’를 맡았다. 이전에도 아직 유혹이 있었지만 “달콤해 보이지 않았다”며 “재작년부터 콘텐츠 시장이 크게 변하면서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다. 퇴사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지난 20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웠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매주 방송을 내보내다 보면 시간 부족 등으로 미흡함이 드러나곤 하는데, OTT는 자율·다양성이 높아져 “창작가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기에 적합하다”며 “명확한 타겟을 공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등 OTT를 타고 K-콘텐츠 열풍이 일고 있다. 드라마, 영화, 음악을 넘어 K-예능물도 주목받는 추세다. 김 PD 역시 ‘어떤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통용될까?’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고 OTT 콘텐츠만 선보일 계획은 없다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가장 돋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K를 붙이는 것도 우리 콘텐츠를 작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빼면 어떨까 싶다”며 “시장이 크게 바뀌면서 예능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실 예능은 드라마, 영화보다 어렵다. 어느 장르보다 문화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드라마, 음악 콘텐츠는 대사, 가사를 통해 충분히 감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예능은 자막으로만 보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최근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한국 예능물을 보면 더빙이 가능하더라. 접근성을 좀 더 높이면서 전략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지금보다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서울체크인을 시작으로 훨씬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선보이고 싶다.”

바다·유진, 슈 4년만 방송 복귀에 눈물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오는 10일 방송



그들 ‘S.E.S.’ 출신 바다, 유진이 멤버 슈(41·유수영)의 4년 만 방송 복귀를 돕는다. 최근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방송 말미 차희 예고편이 공개됐다. 오는 10일 방송에서는 상습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슈의 일상이 그려진다. 영상에서 슈는 “사건이 있고 재판까지 가고

모든 걸 다 놓고 싶었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다. 이런저런 것 따질 때가 아니다. 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정신없이 움직였다”고 털어놓았다.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원군 S.E.S 멤버들은 그런 슈를 위로했다. 바다는 “정신 차리고 이겨내야 해, 수영아. 네 용기가 필요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진 역시 바다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는 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건물주인 슈의 채무로 인해 건물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당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슈는 1997년 1세대 걸그룹 S.E.S로 데뷔했다. 프로 농구 선수 출신 임호성과 결혼 후 쌍둥이 라울·라희와 함께 SBS TV 육아 예능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해 친근한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도박 파문 이후 다수 팬들이 떠나고, 여론도 좋지 않은 상태다.

허성태 ‘조선판 딸바보’, 최리와 부녀 케미 선보인다



조선에서 버금가라면 서러운 딸바보가 등장한다. 6일 KBS 2TV ‘붉은 단심’ 측은 심상치 않은 대화를 나누는 허성태(조원표 역)와 최리(조연희 역)의 첫 스틸을 공개했다.

KBS 2TV ‘붉은 단심’ 다음달 2일 첫 방송

‘붉은 단심’은 생존을 위해 연인의 목에 칼을 겨누야 되는 왕 이태(이준 분)와 중전 유정(강하나 분)이 펼치는 핏빛 궁중 로맨스 드라마다.

허성태는 극 중 내금위를 겸직하는 병조판서 조원표 역을 맡았는데 조원표는 죄의정 박계원(장혁 분) 다음가는 이인자인 동시에 딸을 아주 금지육으로 아끼는 ‘조선판 딸 바보’다. 최리가 연기하는 조연희는 화려한 미모와는 다르게 인후무인에 오만방자한 성격의 캐릭터로 꿈을 이루고자 궁궐로 입성하는 캐릭터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는 이 부녀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조원표는 걱정 어린 시선으로 딸인 연희를 바라보고 있고 조연희는 뽀로통한 표정에 섬섬함을 얼굴로 드러내 이유를 궁금하게 한다.

‘붉은 단심’ 제작진 측은 “허성태와 최리는 극 중 아웅다웅하며 부녀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공감 포인트는 물론 재미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KBS 2TV ‘붉은 단심’은 5월 2일 오후 9시30분에 첫 방송되는 드라마로, ‘크레이지 리브’의 후속작이다.

박정현, 3개월만에 새 디지털 싱글 발매

박정현이 신곡으로 컴백을 예고했다. 소속사 본부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정현이 13일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이름을 잃은 별을 이어서’를 발매한다.

박정현의 신곡 ‘이름을 잃은 별을 이어서’는 2022년 프로젝트 ‘4 시즌스(Seasons)’를 채우는 두번째 곡이다. 첫번째 겨울을 노래한 EP ‘다시 겨울이야’에 이어 봄을 노래한다.

또한 이번 디지털 싱글은 타이틀곡인 ‘이름을 잃어버린 별을 이어서’와 또 다른 수록곡 ‘나의 봄까지 총 두 트랙으로 구성된다. 아이유, 크러쉬 등과 작업한 홍소진, 아이유 ‘밤편지’를 공동 작곡한 김희원이 작곡에 참여했다. 박정현 ‘좋은 사람’, 김범수 ‘보고싶다’ 등 히트곡을 작사한 윤사라와 라라라스튜디오의



김수지가 작사를 맡았다.

옥주현 뮤지컬 ‘마타하리’ 다음달 개막...마마무 솔라 도전장

5년 만에 세 번째 시즌 공연

5년 만에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뮤지컬 ‘마타하리’에 옥주현과 그룹 ‘마마무’의 솔라가 출연한다.

6일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새로워진 매혹의 무대를 그려낸 ‘마타하리’의 캐스팅 라인업과 캐릭터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뮤지컬 ‘마타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이종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 총살 당한 아름다운 무희 ‘마타하리’(본명 마가레타 거트루이다 젤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지난 2016년 초연과 2017년 재연에 참여하며 마타하리 열풍을 이끌었던 옥주현이 이번에도 돌아온다. 비극적인 사랑에 빠진 전설적인 무희 마타하리로 무대에 오르는 그는 이번 시즌에서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그룹 ‘마마무’의 솔라가 뮤지컬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다. 솔라는 마타하리 역으로 첫 뮤지컬에 도전해 뜨거운 열정을 무대 위에서 불태울 예정이다.

마타하리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남자로 화려한 삶에 감춰진 마타하리의 이면은

감싸고 사랑해주는 아랍랑 역에는 크로스오버 그룹 ‘레미아모르’의 김성식과 ‘FT아일랜드’ 이홍기, ‘비투비’ 이창성, 배우 윤소호가 출연한다.

매력적인 외모와 기품을 겸비한 프랑스 초고위 인사이자 마타하리를 스파이로 고용한 라두 대령에는 최민철과 크로스오버 그룹 ‘라비틴스’의 김바울이 무대에 오른다.

마타하리의 결을 지켜며 그녀의 의지가 되어주는 안나 역은 한지연과 최나래가 캐스팅됐다. 또 가수/팬텀레 역은 홍경수와 육현욱이, 마가레타 역은 김지혜, 최진이 맡는다.

뮤지컬 ‘마타하리’는 2016년 초연 당시 3개월 연속 예매 랭크 1위, 개막 8주 만에 10만 관객 돌파,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작품은 엄홍현 총괄 프로듀서를 선두로 국내에서 마니아층을 보유한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과 작사가 잭 페리가 함께하고, 권은아가 대본과 연출을 맡았다. 이번 작품은 서사, 음악, 무대



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진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극 중 인물의 이야기를 더욱 세밀하게 묘사하고 마타하리를 비롯한 모든 캐릭터의 유기적인 서사와 관계성을 더할 예정이다. 한층 더 깊은 서사에 감성적이고 동작성 있는 선율의 신곡도 더해진다.

뮤지컬 ‘마타하리’는 오는 5월28일 서울 송파구 사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한다.